APDC · APDF 아시아 태평양 치과의사를 하나로

APDC(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란 Asia Pacific Dental Congress의 약자로 매년 APDF(아세아태평양치과연맹)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치과계의 국제행사이다.

이 행사기간 중에는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 주요행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교행사 및 관광프로그램도 마련되어 그 나라의 치과수준 및 문화도 소개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55년, 동경에서 처음으로

1954년 2월 인도의 봄베이에서 열린 인도치과의사협회 제8차 정기총회에서 일본치과의사회 및 일본치과대학 대표였던 동경치과대학 Prof. Seiichi Matsumuya는 '일본의 치과 현황'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는데, 그때 그는 이듬해 동경에서 아시아국가들의 치과대회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고 인도의 협조를 구하였다. Prof Matsumiya는 이어 파키스탄, 버마(현 미얀마),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등을 방문하여 이들 국가의 주요 치과의사협회에도 협조를 구하였다.

그 결과로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치과대회를 열어 상호 이해와 교류 및 학술지식의 교환을 원활히 하자는 제의에 동의하였고 마침내 첫 대회를 1955년 동경에서 치르게 되었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본치과의사회(당시 회장 : Dr. Yoshio Ogura)는 1954년에 열린 연차정기총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치과의사협회 대표들을 동경으로 초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9월에 일본치과의사회 임원들은 필리핀치과의사협회 대표, 인도치과의사협회 대표 등과 만나 이를 협의하여 버마(현 미얀마), 실론(현 스리랑카), 대만,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라야,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등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게 되었다.

APDF의 최초 정관은 1958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2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APDF가 FDI의 아세아태평양지역기구(APRO)로 인정받으면서, 1967년 오스트랠리아의 멜버른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기존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열린 제5차 APDC에서 승인되었다. 뒤이어 그 정관은 정기적으로 연맹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개정, 발전되어왔고 이와 같이 연맹도 차츰 체계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국가별 치과조직간 긴밀한 협력관계 수립

APDF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태지역의 구강보건과 일반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의료활동, 연구 및 공중보건분야의 해당 지역 국가별 치과조직들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한다.

아태지역의 전문 치과분야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치의학과 그 관련학문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와 정보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

세계보건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위해 국제적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한다.

자발적 창립

FDI 회원협회는 정회원협회가 105개, 준회원협회가 24개, 연합회원협회가 29개 등 총 158개의 회원협회를 거느리고 있고, 치과의사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회원 수가 2000년 2월 현재 7만여명에 달한다.

FDI 산하에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각 지역에 5개의 지역기구가 있으며 그 지역기구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 가운데 APDF는 FDI 산하 지역기구로 활동하기 이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구강보건발전을 위하여 1952년에 지역기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창립되었고 이에 따라 여타 지역기구와 달리 2가지 명칭(Asia Pacific Dental Federation/Asia Pacific Regional Organization)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국제대회 유치, 한국 위상 높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58년 3월16일 APDF(아세아태평양치과연맹)에 먼저 가입한 후 1년 뒤 1959년 9월 12일에 FDI(세계치과의사연맹)에도 가입하여 모범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후 치협은 1967년 4월 24일~28일 제5차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 총회(조직위원장 : 이영옥)에 이어 제14차 총회(조직위원장 : 정동균)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에 힘입어 1992년 FDI 베를린총회에서 극적으로 총회를 서울로 유치 1997년 9월에 제85차 FD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냈다.

여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데 힘입어 국내 여러 치과계 인사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해 왔는데 윤흥렬 치협고문은 FDI 상임이사, 교육분과위원을 역임 후 1998년 재무이사로 당선되어 활동 중이며, 지헌택 고문도 APDF의 ICCDE의 초대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표. APDF 회원국 현황(2000년 6월 30일 현재)

1	호주(Australian Dental Association)
2	방글라데시(Bangladesh Dental Society)
3	대만(Chinese Taipei Association for Dental Science)
4	피지(Fiji Dental Association)
5	괌(Guam Dental Association)
6	홍콩(Hong Kong Dental Association)
7	인도(Indian Dental Association)
8	인도네시아(Indonesian Dental Association)
9	일본(Japan Dental Association)
10	한국(Korean Dental Association)
11	마카오(Macau Dental Association)
12	말레이시아(Malaysian Dental Association)
13	몽고(Mongolian Dental Association)
14	미얀마(Myanmar Dental Association)
15	뉴질랜드(New Zealand Dental Association)
16	네팔(Nepal Oral Health Society)
17	파키스탄(Pakistan Dental Association)
18	파푸아뉴기니아 (Papua New Guinea Dental Association)
19	필리핀(Philippine Dental Association)
20	사우디아라비아(The Saudi Dental Society)
21	스리랑카(Sri Lanka Dental Association)
22	태국(The Dental Association of Thailand)

또한 양정강 전 치협 부회장은 APDF 부회장과 재무이사를 역임하고, 현 치협의 이사들인 김판식 군무이사, 홍삼표 학술이사 등 여러 국내 치과인사들이 국제치과기구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조행작 국제이사는 APDF의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치협은 제24차 APDC 서울총회의 준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하고, 세계구강보건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기구들과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구강보건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치과계의 영향력을 세계전역에 떨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